

# “귀농·귀촌, 일자리 문제 대안으로 키워야”

### 농촌경제연구원 귀농인 통계 지난해 49만명 꾸준한 증가세 영광 여민동락 등 공동체 활동 토박이 주민 화합·발전 역할

농어촌의 귀농·귀촌이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 사람이 없는 마을이 생겨나는 ‘지방소멸’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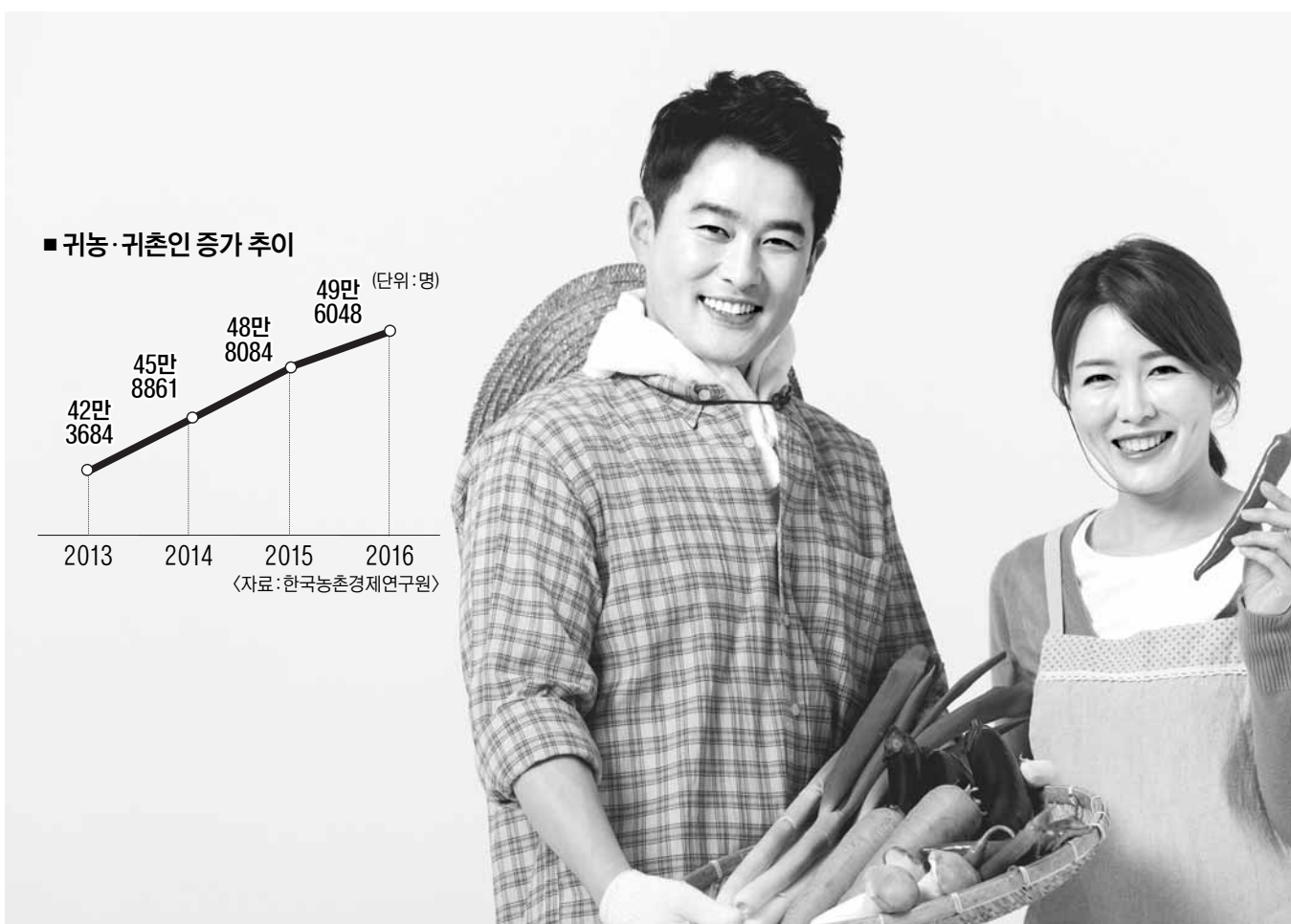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29일 발표한 ‘2016 귀농·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이후 꾸준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 수단으로서 귀농·귀촌 정책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05년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희망 의사는 56.1%, ‘귀농·귀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도시민’ 비율은 2.5%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귀농·귀촌인은 42만3684명(2013), 45만8861명(2014), 48만8084명(2015), 49만6048명(2016)으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귀농인은 2만559명이 고 귀촌인이 47만5489명이라 귀촌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귀농·귀촌인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귀농·귀촌 목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업·농촌 발전에는 고무적이다.

또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대안으로서 농업·농촌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자연환경 등을 비롯



한 농촌의 매력 때문에, 도시생활의 피로 등에서 벗어나고자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국가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농업의 후계인력 문제 해소,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 지역격차 완화 등에 있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귀농·귀촌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농촌 발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 초록누리협동조합, 충남 홍성군의 생미식당,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 등의 사례가 좋은 예다. 또 장수군 초록누리협동조합은 장수군 하늘소마을의 귀농·귀촌 여성들과 토박이 주민들이 함께 결성한 협동조합이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귀농인들이 지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존에 수행한 바 있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학교 밖 교육 서비스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주거 및 일자리 안정화를 돕고 지역공동체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친다면 지방소멸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전·현대중공업·오일뱅크 3사 원유 정제부산물 공동개발 업무협약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현대중공업 및 오일뱅크 3사는 29일 현대중공업 서울 계동사옥에서 해외 Pet-coke(석유정제 부산물) 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 날 체결식에는 한국전력 유향열 부사장, 현대중공업 정기선 전무 및 오일뱅크 문중박 사장이 참석해 향후 Pet-coke 사업에서 3사의 협력을 논의했다.

Pet-coke 발전은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인 Pet-coke를 발전연료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Pet-coke는 석탄 대비 20% 이상 저렴하고, 열량은 석탄과 유사하지만(약 8000kcal/kg) 황 함유량이 높아 청정발전 연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었다. 하지만, 최근 탈황기술(연소시 황 제거기술)의 발달로 Pet-coke를 이용한 발전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겸비한 새로운 연료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한전-현대중공업-오일뱅크 3사는 각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해외 Pet-coke 발전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전사업 개발능력, 기자재 생산 및 발전소 운영능력의 분야에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한전은 2016년과 2017년에 포브스가 선정하는 전 세계 Utility사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할 만큼 전력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Pet-coke 발전 설비를 위한 CFBC(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유일한 Pet-coke 발전소 운전경험을 갖고 있다.

한전관계자는 “Pet-coke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전력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신규사업영역에 대한 전략적 협업 모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 국제 영상콘텐츠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콘텐츠진흥원 내달 7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국내 우수 영상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방송영상컨텐츠(BCWW) 2017(이하 BCWW 2017)’참가업체를 다음달 7일까지 조기 모집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방송사, 배급·유통사, 제작사 외에도 영상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OTT(Over-The-Top),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신규 미디어 참여를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포맷 마켓(BCWW Formats) 연계 개최를 통한 규모 확대를 위해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열린 ‘BCWW 2016’에서는 세계 44개국·242개 전시사가 참가했으며, B2B 특성이 강한 행사임에도 일반 관람객은 7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또 2961명의 바이어가 참석해 3285만 달러의 거

래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BCWW 2017”은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www.bcww.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7월 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 참가신청을 할 경우 참가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연속 참가하는 기업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참가형태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보다 참가분야를 다양화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참가사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CWW 2017’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또는 BCWW 홈페이지(www.bcww.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열린 ‘BCWW 2016’ 행사장 전경.

## 전자파 안전하게 쓰려면?

### 국립전파연구원 포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전자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5차 전자파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전파연구원 2015년부터 전자파 영향에 관한 국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올해 5차다.

포럼은 김남 총독대 교수의 기조강연 ‘국내·외 전자파 인체영향 동향’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후 학계·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느끼는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과 최근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동물실험·역학조사 연구 결과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 미디어 보도분석을 통해 본 전자파 인식 및 생활 속 전자파 환경실태에 관한 발표도 진행됐다. /박기용기자 pboxer@

## 막 내린 ‘LED & OLED 엑스포’...일본·인도 등에 수출계약

지난 27일 세계 14개국 27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국제 LED & OLED EXPO 2017’가 3일간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했다. 관람객 수는 1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가 광주에서 개최해온 ‘국제광산업 전시회’와 엑스포연유가 주관하는 ‘국제발광다이오드(LED)&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엑스포’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 치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통신 솔루션과 LED 융합제품이 대거 출품돼 광 관련 신제품과 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 산업전시회가 됐다는 평가다.

광산업진흥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 개최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북남미와 유럽, 아시아, 중동 등 25개국 광관련 바이어 227명이 참가해 300여건의 상담을 통해 835억원의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에이팩·중우·케이원제이·하우스앤은 일본조명공업회 회원사와 OLED·LED조명제품을, 광통신부품기업 지오씨·국제광엔지니어링은 멕시코·도미니카·인도 등의 기업과 광케이블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OLED조명 국제 기술교류회에서는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등과 한·독 양국 OLED 조명 연구개발(R&D)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월 한국 OLED 기술교류단을 독일에 파견해

양국 OLED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산업진흥회는 내년엔 열리는 ‘2018 국제광융합엑스포’에서 제23차 국제광산업협회(IOA)연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미국·일본 등 12개국 광산업 협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국가간 광산업 분야 공동 협력방안과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정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시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세계 광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며 “한국의 광산업 위상이 세계 탑 3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가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구이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